

## 영국 UNITED KINGDOM



### 영국 수사기관의 과도한 휴대전화 정보 요구로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침해 우려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 성폭행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언론과 성폭행 피해자 보호단체들은 경찰이 사건 수사를 이유로 피해자 상담 일지, 의료 기록, SNS 정보 등을 무분별하게 수집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성폭행 피해자 보호 단체인 ‘Rape Crisis England & Wales(RCEW)’의 도움을 받아 이런 내용의 단독 기사를 9월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들이 접수한 경찰 조사 관련 불만 10건 중 8건이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 개인정보 공개 때문으로 드러났다.
- 영국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 요구 때문에 발생한 불만만 집중적으로 분석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디언지는 RCEW와 협업체 성폭행 피해자 상담사인 ISVA(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er)<sup>1)</sup>를 통해 익명화된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료를 만들었다.
-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모두가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검찰로부터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으며, 이러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례로 피해자의 ‘과거 성생활과 생활 습관’ 등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이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RCEW 대변인 케이티 러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기관이) 사건 조사를 이유로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 하지만 대부분 정보가 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하지만 영국 검찰 측은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 수집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 대변인은 “피해자 모두 반드시 휴대전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피의자 유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해명했다.

1) ISVA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SARC 서비스 소개, 피해자 심리 상담부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회 복지 정책, 주거 지원까지 연결하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가다. ISVA는 2005년 제도적으로 정착돼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자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7112/The\\_Role\\_of\\_the\\_Independent\\_Sexual\\_Violence\\_Adviser\\_-\\_Essential\\_Elements\\_September\\_2017\\_Final.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7112/The_Role_of_the_Independent_Sexual_Violence_Adviser_-_Essential_Elements_September_2017_Final.pdf)

#### 참고자료

- England & Wales (2019.9.21)  
“Exclusive Rape Crisis data on rape victims’ mobile phone downloads”, <https://rapecrisis.org.uk/news/latest-news/exclusive-rape-crisis-data-on-rape-victims-mobile-phone-downloads/> (검색일: 2019.9.25)
- The Guardian (2019.9.21)  
““People who report rape face ‘routine’ demands for their mobile data”,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1/people-report-rape-routine-demands-mobile-data?CMP=Share\\_iOSApp\\_Other](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1/people-report-rape-routine-demands-mobile-data?CMP=Share_iOSApp_Other) (검색일: 2019.9.25)

## 프랑스 FRANCE



### 프랑스,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살해 증가로 대응계획 발표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프랑스에서는 최근 남성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femicide) 이슈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9월 1일 남부지방의 기차역 근처 쓰레기더미에서 21세 여성의 토막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웃 일부는 해당 여성이 길거리에서 그녀의 파트너에게 폭행 및 살해당했다고 증언했지만, 현재 그녀의 파트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살해된 여성이 올해 프랑스 내 100번 여성살해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의 주최 하에 프랑스 도심에서는 시위가 개최되었으며, 시민들은 1부터 100이 쓰인 숫자 팻말을 들고 100명의 피해자를 기리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사건이 보도된 뒤 바로 이틀 뒤, 92세 여성이 94세의 남편에게 지팡이로 폭행당한 끝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여성살해 피해자는 100명을 넘어서다.
- 한 프랑스 방송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핫라인 3919의 관련 자료 발표 당일에만 약 1,661명의 여성이 핫라인에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수십여 년 견뎌오다가 마침내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경찰에 연락해서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집에 함께 같이 가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사법당국의 명령이 있어야 가족 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 프랑스 정부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 피해자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자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향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의 주최 하에 이번 달 2일에는 경찰관,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 여성살해 피해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계획이 논의되었다.
- 또한 에두아르 필리프(Edouard Philippe) 총리는 여성살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향후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가정폭력 및 여성살해 문제 해결에 약 5백만 유로(한화 약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 피해자들이 긴급상황 시 머물 수 있는 약 1천여 개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새로 만들고, 400여개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관련사건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필리프 총리는 사건접수 및 처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격리하고, 피해여성 보호에 실효성을 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여성살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즉각적인 예산투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BBC (2019.9.3.)  
“France announces anti-femicide measures as 100th killing recorded”,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571327> (검색일: 2019.9.23.)
- BBC (2019.9.7.)  
“Femicide: The murders giving Europe a wake-up cal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586759> (검색일: 2019.9.23.)
- Euronews (2019.9.3.)  
“Watch: Protestors mark 100 domestic violence deaths in France in 2019”, <https://www.euronews.com/2019/09/03/watch-protestors-mark-100-domestic-violence-deaths-in-france-in-2019> (검색일: 2019.9.23.)
- France 24 (2019.9.9.)  
““Daddy killed mummy”: Women take to Paris streets with anti-femicide poster campaign”, <https://www.france24.com/en/20190909-france-femicide-daddy-killed-mummy-women-paris-streets-poster-campaign> (검색일: 2019.9.23.)

## 독일 GERMANY



### 독일, 항공 승무원 대상 성희롱 문제 심각

채혜원 독일통신원

- 최근 독일에서 항공 승무원이 겪는 성희롱 문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항공 승무원 비영리조직인 ‘UFO(Unabhängigen Flugbegleiter Organisation)’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항공 승무원 두 명 중 한 명꼴로 직장에서 적어도 한 번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발언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 ‘UFO’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1,000명 이상의 항공 승무원이 참여했다.
- 항공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은 주로 기내에서 발생했으며, 일시 체류했다가 두 번째 비행을 떠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의 45%는 파일럿과 같이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이었고, 25%는 승객이거나 같은 등급의 승무원이었다. 항공 승무원 비영리조직인 UFO에서 2년 넘게 승무원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실비아는 “많은 승무원이 근무 중 성희롱을 경험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UFO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함께 비행 중인 직속 사나 회사에 일반적으로 배치되어있는 성평등담당관 또는 관련 부서 팀 리더에게 도움을 청하고 보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비행 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정을 짜고, 승객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일 경우 항공사가 승객을 항공편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뒤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UFO 자료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하는 항공사 비율은 낮은 상태다.
- 성희롱은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UFO 조직의 실비아는 독일 언론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관리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와 올바른 피해자 지원 방법 등을 배워야 한다.”며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항공사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미투 운동’이 항공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UFO 조직의 실비아는 “‘미투’ 이후 성희롱이 그냥 넘어가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항공사가 성희롱을 내부 문제로만 간주해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UFO는 또한 성희롱과 함께 성차별적 업계 문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성 승무원에 대해 메이크업과 하이힐 착용 등을 요구하는 사안도 문제라 지적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긴 머리에 작은 모자를 쓰는 것이 항공사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항공사에서는 모든 직원에 대해 같은 머리 스타일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항공 승무원 직업훈련 중에는 실제 비행보다 더 길게 화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승무원에 대한 체중 요구사항도 있었다.
- 이어 UFO는 세련된 머리 스타일이나 몸에 딱 맞는 유니폼 등으로 대표되는 여자 승무원의 잘못된 이미지는 ‘항공사의 성차별적인 광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십 년 동안 항공사 광고는 성차별적 이미지를 연출해왔다. 예를 들어 조종실에는 항상 두 명의 남성이 앉아 있으며, 그 주변에 긴 머리의 여성 승무원이 서 있는 모습이다. 광고 슬로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승무원은 안전을 책임지고, 직업 훈련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항공기에서 대피시키는 법을 배우지만 광고 슬로건은 대부분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 많았다. UFO의 실비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음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런 서비스 제공은 승무원의 주요 임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UFO는 독일 내 3만 명 이상의 항공사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임금 정책 등을 다룬다. 회원 항공사의 임금 정책과 임금 체계, 여러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가 및 국제 차원의 로비 활동을 통해 단체 이익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승무원의 재교육을 통해 직무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직에서는 약 20명의 정규직 직원과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

#### 참고자료

- UFO(Unabhängigen Flugbegleiter Organisation)  
<https://ifo-online.aero/de> (검색일: 2019.9.22.)
- Die Welt(2019.8.13.).  
“Viele Flugbegleiter sind sexueller Belästigung ausgesetzt,” <https://www.welt.de/vermischtes/article198422453/Umfraege-Flugbegleiter-oft-sexueller-Belaestigung-ausgesetzt.html> (검색일: 2019.9.22.)
- Der Spiegel(2019.8.16.).  
“Lange Haare, Dutt und Hütchen – das wird als Firmenidentität verkauft,” <https://www.spiegel.de/karriere/sexuelle-belaestigung-von-flugbegleitern-warum-das-problem-so-gross-ist-a-1282061.html> (검색일: 2019.9.22.)